

# '의료공백 최소화' 비상진료대책 운영

### 전주시보건소, 의료기관 필수 의료분야 현장 점검·필요시 업무개시 명령도 고려

전주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등 전주지역 수련병원에서 수련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진료 공백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보건소는 가장 먼저 의료기관의 필수 의료분야(응급·중환자·수술·분만·투석) 현장을 지속 점검해 진료



전주시 덕진보건소 전경  
계속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업무개시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일부터는 전공의 사직과 의료기관의 휴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는 의료계 총파업으로 일반의원이 휴진에 동참할 시 연락망을 편성하고, 개시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현황에 대한 유선 및 현장점검을 실시 및 휴진 의료기관을 전주시 누리집과 완산·덕진구청 누리집, 전주시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등에 게시한다. 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이 연장 운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분만기능 의료기관 현황 등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완산구 의료기관 상황실(전주시보건소, 063-281-6232)과 덕진구 의료기관 상황실(덕진보건소, 063-281-8528)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 드림랜드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 전 기종 '적합'으로 판정돼 26일부터 드림랜드를 재개장할 계획이다.

##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26일 재개장

### 전주시, 시설물 보수공사 완료·안전성검사 적합 판정

전주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가 시설물 전면 보수공사를 마치고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 드림랜드에 대한 관련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전 기종 '적합'으로 판정돼 오는 26일부터 드림랜드를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주동물원 드림랜드는 지난 2022년 경미한 놀이기구 고장이 발생한 이후 놀이기구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로 인해 운영이 중단돼왔다.

당시 시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통과하고 경미한 놀이기구 고장이었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드림랜드 운영을 전격 중단하고, 놀이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거쳐 대대적인 보수 작업에 임해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해 관련법에 따른 인증 전문검사기관(사) 안전보건진흥원을 통해 비파괴검사 기술인력을 포함한 9명의 기술자를 투입해 기초부 기동 및 주요 구조물에 대한 초음파 및 자분탐

상, 액체 침투 등 비파괴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계·전기구조물 등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추진했다.

그 결과 주요 놀이기구의 유압·공조 장치, 승용물 체결부 및 안전장치 등 총 10기종 109건에 대한 개선 요구가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보수견적서를 도출했다.

이후 시는 드림랜드 노후화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놀이기구의 보수에 소요되는 견적 금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원가검토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놀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월 말 보수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련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에서 전 기종 '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물을 재개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조기 개장하는 것보다는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우선으로 운영 중단 당시의 취지를 생각하고, 주요 이용 대상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점검과 완벽한 보수에 중점을 뒀다.

##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광주 통합 즉각 중단하라"

### 전주시의회,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를 광주지부에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진북, 인후1·2, 금안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통합 결정 즉각 중단과 전북지부 운영 원상복구,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혁신 가이드라인 즉시 철회 등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1999년 설립 후 전북지역 재직 및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금과 후생복지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의 대부서화 및 지방조직의 효율화 등을 명분으로 4월부터 전북지부의 업무와 인력을 광주지부에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이번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광주·전남권에 예속된 호남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전북특자도 출범을 통해 독자 권역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전북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일은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도약을 기대하는 전북의 기대를 한 달도 안 돼 꺾고, 3만4,000여 명 공무



전주시의회는 21일 남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연금 수령자와 5만6,000여 명의 연금납부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고령층인 퇴직 공무원들로 대면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상당수라 지부를 통합할 경우 이들이 겪을 어려움도

상당하다"며 광주지부로의 흡수 통합을 강하게 반대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에 보낼 예정이다.

##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총장 일행, 전주 방문

전주시는 피터 램(Peter Lam) 총장을 대표로 한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관계자 5명이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표단의 전주 방문은 지난 2022년 이 대학 학생 및 관계자들이 9박 10일 동안 전주를 찾은 데 이어 2년 만으로, 테마섹 폴리테크닉은 지난 2021년 전주시와 관광·학술교류 MOU를 체결한 이후 그동안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등 전주지역 대학들과 학술 및 학생 간의 교류를 추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단의 이번 전주 방문은 시와 싱가포르의 미래도시비전을 공유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방문단은 또 이번 전주 방문 일정 중 전주대학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대학교와도 국제교류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단은 전주 방문 이틀째인 21일에는 전주시청을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을 예방하고 관광 및 문화 교류,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MOU 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대학과



피터 램(Peter Lam) 총장을 대표로 한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관계자 5명이 전주시청을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을 예방하고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논의했다.

학생,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추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전주시청공단, 상반기 정규직 16명 공개채용

전주시청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2024년 제1회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22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통해 정규직 16명에 대한 상반기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응시원서는 공단 채용 사이트(https://jss.jbnlab.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채용인원은 직종별로 일반직이 △행정 1명 △행정(기록물) 1명, 운영직이 △사무안내 1명 △안전관리자(수영 2명, 인라인 1명) 3명 △운전원(마을버스) 10명이다.

이 중 3명(행정 2명, 사무안내 1명)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지역 인재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직종별로 일반직이 △행정 1명 △행정(기록물) 1명, 운영직이 △사무안내 1명 △안전관리자(수영 2명, 인라인 1명) 3명 △운전원(마을버스) 10명이다.

이 중 3명(행정 2명, 사무안내 1명)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지역 인재로 채용한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